

2025년

7월~9월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제 3부

요한복음의 교훈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위해 기뻐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목 차

1. 예수님, 시몬, 마리아.....	5
2. 승리의 입성.....	10
3.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15
4. 종들의 종이신 예수님.....	20
5.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26
6. 성령의 약속.....	31
7.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36
8. 형제 사랑.....	41
9. 성령의 사명.....	47
10.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I)...	52
1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II) ..	57
12. 그리스도의 체포.....	62
13. 시몬 베드로.....	67

안식일 성경교과

매일의 양식인 안식일 성경 교과는 다른 부가적인 주석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만을 기초로 하였다. 인용문들은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어떤 경우에 사용된 괄호[]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맥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아울러 모든 인용문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편 저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발 행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송죽 2리 32번지)

발행인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안식일 학교부

인 쇄 : 의성사

전 화 : 054) 435-1843

팩 스 : 054) 434-4521

(농 협) 351-0513-4988-73 (예금주)사단법인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우체국) 700377-01-005190 (예금주)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SDA개혁운동 한국 합회 홈페이지 주소 : www.sdarm.or.kr

(상기 주소나 오른쪽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성경교과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칠일재림교개혁운동

서문

요한복음의 교훈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데 매일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리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몰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시대의 소망, 83.

사도는 참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곧 신성한 지혜와 뜻과 능력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분으로, 그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계시되었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 세상의 빛, 아버지의 마음이 살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분으로 언급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심은”(벧후 3:9) 하나님의 뜻은 요한을 통해 밝혀지고, 요한은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 겐세마네로 우리를 이끈다.

이 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고 이교 사상에 젖어 흠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말씀, 참된 빛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었던 것 같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세기 말에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에 맞서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전반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원시적인 경건함은 감소하고 있었고(계 2:4)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세력을 얻고 있었다(요일 2:15).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양 떼를 침범하고 있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성육신하여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며, 그들이 본 것은 단지 환영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계시된 진리는 당시에 특히 중요했다. 교회를 위협하던 또 다른 위험은 로마 당국의 박해였다.

요한복음이 초기 그리스도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요한복음은 시대를 거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이 교과들을 계속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한다!!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타히티의 아루에 교회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아름다운 열대 풍경과 목가적인 풍경으로 흔히 여겨지는 타히티 섬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위치해 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12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프랑스령 해외 영토로, 면적은 3,418km²에 달하며, 남태평양의 2,000km²가 넘는 곳에 걸쳐 있다.

역사적으로 이 많은 섬 주민들의 다신교 신앙은 태양 숭배, 식인 풍습, 정령 숭배 등 다양한 이교 관습으로 이어졌다. 1797년 이 섬에 온 영국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후 프랑스는 1800년대 후반 이 지역을 식민지화했다. 오늘날 약 27만 9천 명의 주민 중 54%는 개신교, 38%는 가톨릭이며, 나머지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1982년 A.C.사스 형제의 방문을 통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개혁의 기별이 전해졌다. 첫 번째 신자 24명이 1년 후 침례를 받았다. 복음 기별은 섬 전체에 계속 전파되었고, 그 이후로 여러 교회 그룹이 형성되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있는 우리 교회에는 자체 교회 건물이 없으며, 형제들은 임대 건물이나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에서 모임을 갖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3년, 많은 기도와 금식 끝에 타히티 파페에테에서 약 20km 떨어진 아루 지역에서 땅을 찾았다.

이 교회의 소수 교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 매주 채식 요리를 하고 판매하여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 땅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범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곳에 진리의 기별을 전파할 건물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 형제자매들에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수도 아루에에 지역 교회이자 세미나, 캠프 모임, 보건 사업 장소로 사용될 건물을 세우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대상 22장 19절의 고무적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그분의 사역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기원한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형제자매 여러분으로부터



예수님, 시몬, 마리아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눅 7:47)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4권, 485~487, 550~552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대가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568.

첫째 날(일요일)

6월 29일

1. 베다니에 마지막 방문

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과 이것이 시몬의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설명하라. 요 11:55~57; 시 55:21.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다. 시몬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의 하나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한 교사로 알았고 예수님께서서 메시야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557.

나. 시몬은 어떤 큰 축복을 받았으며,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했는가? 눅 7:36.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 받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께 이끌려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는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시대의 소망, 557.

2.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빛

가. 사교 모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후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상황과 그 상황이 이번 경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하라. 시 55:21.

“이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참석하였다. 이 때에 예루살렘은 크게 흥분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주목을 끌게 되었다.

잔치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적의가 서린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다.” -시대의 소망, 557.

나. 시몬의 잔치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을 이야기하라. 눅 7:37, 38; 요 12:3.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시대의 소망, 558, 559.

다. 유다는 이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요 12:4, 5; 마 26:8, 9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였으므로 마리아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유다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활하게도 불평을 일으키기 십상인 암시를 하였다.” -시대의 소망, 559.

3. 유다의 악의

가. 실제로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행위를 왜 비난했는가? 요 12:6.

“제자들을 위한 회계였던 유다는 그들의 얼마 되지 않은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히 얼마를 떼어 두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재원(財源)은 줄어들었다.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기를 열망하였다. 주머니 속에 있는 재물은 가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때때로 유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샀을 경우 그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이 돈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이 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느냐’고 말하곤 하였다. 지금의 마리아의 행위는 수치를 받아야 할 그의 이기심과는 매우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의 이전 관례대로 그는 그 여자의 선물에 대한 자기의 반대에 어떤 가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제자들을 돌아보며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흠쳐감이러라’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559.

나. 제자들은 유다를 어떻게 생각했으며,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요 13:29.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재정 관리인으로서 그는 그의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제자들도 그를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유다는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그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그는 그들을 속였다. 그의 교활한 암시는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헌신을 불신하게 하였다.” -시대의 소망, 559.

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불평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이며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되는 민감한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라. 유 1:16.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의 가슴은 떨렸다. 그는 그의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주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른다.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는 피하려고 하였다.” -시대의 소망, 560.

4. 시몬과 마리아

가. 시몬은 자신의 바리새인적 교만과 마리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눅 7:39

“주인 시몬은 마리아의 선물에 대한 유다의 비평에 마음이 움직였으며, 그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의 바리새인적 자존심은 상하였다. …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했던 처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자신에게 접근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에, 그 여인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여인을 분노하여 물리치지 않으신 까닭에 그 여인이 타락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몬은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시대의 소망, 566.

나. 예수님께서서는 시몬과 마리아의 은밀한 삶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눅 7:40~43.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을 어떻게 꾸짖으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눅 7:44~46.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것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써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회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는 그의 완고한 마음에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다. 시몬은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시라면 죄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견책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시대의 소망, 566.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분은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주기를 원하셨다. 오백 데나리온의 빛이 오십 데나리온의 빛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시대의 소망, 566, 567.

다. 예수님께서서 마리아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눅 7:48, 49. 그리스도의 비유는 시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대의 소망, 567.

5. 시몬의 회심

가. 결과가 우리에게 아무리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왜 우리는 시몬과 같은 죄인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도록 권장받는 것인가? 잠 9:8; 약 5:20.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그가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어린 친절로써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빛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시대의 소망, 567, 568.

나.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녀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가? 마 26:12, 13; 눅 7:50.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끝 지워 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 주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일곱 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시대의 소망, 56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7

1.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마리아의 더 좋은 자질들을 기를 수 있는가?
2. 잔치에서 유다의 태도를 통하여 어떤 경고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3. 시몬의 생각이 빠지도록 한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4. 마리아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은 언제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5.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의 잘못을 납득시키신 방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승리의 입성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작은 나귀 새끼를 탔도다”(마 21:5)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569~579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만, 위선, 증오, 그리고 악의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셨다.”
-시대의 소망, 577.

첫째 날(일요일)

7월 6일

1. 감람산에서

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지시를 내리시며 두 제자를 먼저 보내셨는가? 마 21:1~5.

“예루살렘에 타고 갈 목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두 제자를 보내어 그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다. 구주께서는 태어나실 때,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하셨다. 그가 누우신 구유는 빌린 안식처였다. 들에 있는 수많은 가축이 다 그분의 것이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타실 짐승을 다른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시대의 소망, 569.

나. 제자들의 행동을 묘사하라. 마 21:6, 7.

“열광적인 즐거움으로 제자들은 저희 옷을 짐승 위에 펴고 주님을 그 위에 앉혔다.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언제나 도보로 여행 하셨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지금 짐승을 타고 가기로 선택하시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랐다. 그러나 그분께서 도성에 들어가셔서 친히 왕임을 선언하시고 왕권을 주장하시리라는 즐거운 생각에서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빛났다.” -시대의 소망, 570.

2. 즐거운 순간

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요 12:12, 13.

“(제자들은) 심부름을 가면서 그들은 저희의 열렬한 기대를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전달 하였으며 따라서 흥분은 널리 원근에 퍼졌고 백성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다.” -시대의 소망, 570.

나. 그 즐거운 날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눅 9:9; 요 12:14, 15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탄 것 이었던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가 그분의 나라에 임하시 리라고 예언되었다.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하 였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 왕 메시아로서 환호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전에는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으셨던 충성의 맹세를 받으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이 보좌에 오르심 으로서 그들의 즐거운 희망은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시대의 소망, 570.

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은 시편 기자의 말씀을 어떻게 기쁨으로 되뇌었는가? 마 21:9; 시 118:26

“군중들은 해방될 시간이 이르렀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부터 쫓겨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독립 국가가 되는 것을 상상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흥분에 도취되었고 서로 다투어서 그분께 충성을 바쳤다. 그들은 화려한 행렬과 웅 장함으로 장식할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값진 선물을 그분께 선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가시는 길에 저희 걸옷을 융단처럼 펴 놓았고 또한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와 종려나무의 가지를 큰길에 깔아 놓았다. 그들은 대형 깃발을 가 지고 승리의 행렬을 인도할 수는 없었지만 자연계의 승리의 상징인 짙은 종려나무 가 지를 꺾어 높이 흔들면서 큰 환호성과 호산나를 외쳤다.” -시대의 소망, 570.

3. 예언의 성취

가. 바리새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요 12:19; 눅 19:39.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질투와 악의에 불타올라 민중들의 감정의 흐름을 돌리려고 애썼다.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을 행사하여 백성을 침묵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간청과 위협은 열심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이 그들의 수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중들을 헤치고 구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는 책망과 위협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끄러운 시위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국에서 허락할 수 없었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시대의 소망, 572.

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눅 19:40.

“이 승리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기에는 무력하였다. 만일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돌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돌들의 찬양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게 하셨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572.

“의의 태양에게서 흘러 나오는 영광의 빛을 세상이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것은 마치 제사장들과 위정자들이 빛나는 태양 빛을 땅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같았다.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47.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이 그것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항상 전진할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 85.

다. 군중 속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듯이, 이 놀라운 분출은 어떤 예언의 성취였는가? 슥 9:9

“잠잠해진 바리새인들이 물러서자, 스가라의 말이 수백 명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스 9:9 인용].” -예수님 이야기, 572~575.

4.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향함

가.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날, 어떤 목적으로 것처럼 큰 시위를 허락하셨는가? 요 12:16, 23~28.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지상 생애에서 결코 이런 시위 행렬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분께서는 그 결과를 훤히 내다보셨다. 이것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주로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그분의 목적하신 바였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희생에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열망하셨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동안 원형적(原形的)인 양이신 그분께서는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셨다. 이후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는 세상 죄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깊은 사색과 연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실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큰 희생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희생 그 자체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야 하였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행하던 그런 시위 행렬이 있을 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최후의 장면으로 향하시는 그분의 급박한 행진을 보게 될 것이었다.

승리의 입성과 관계된 사건들은 각 사람의 화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시켜 회상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님께서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는 개심자들이 증가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571.

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서는 도성 전체가 볼 수 있게 되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눅 19:41~44.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그 기쁨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조용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시고 신음하고 계셨다. 군중들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들의 만세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동정하여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을 예감함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이 그의 구속자를 거절함으로써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분을 받아들였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을 보셨다.” -시대의 소망, 576.

5. 예루살렘 입성

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관원들은 무슨 질문을 했고, 소란 속에서 어떤 대답을 얻었는가? 마 21:10, 11.

“감람산을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 행렬은 관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그들은 떠들썩한 기쁨의 원인을 묻는다. 그들이 ‘이는 누구냐?’ 라고 질문할 때에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여 이 질문에 대답한다. 그들은 웅변적인 어조로 그리스도께 관한 예언들을 아래와 같이 반복한다.” -시대의 소망, 578.

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마 21:12~16; 시 8:2.

“삼년 전 성전 치리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도주하는 수모를 당했었다. 그 후 그들은 저희 스스로 공포심을 느끼고 일개 비천한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 일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체신없이 복종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전보다 더욱 무서워서 더 급히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감히 물어 본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저희 가족들을 몰고 그분 앞에서 도망하였다.

군중들이 성전에서 도망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뒤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 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성전 마당은 다시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으로 가득 찼고 한번 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봉사하셨다.” -시대의 소망, 591, 592.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5

1.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오늘날 어떻게 자주 반복되는가?
2. 약속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3.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이때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5.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때 그토록 많은 무리의 환호를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참조할 연구교재: 실물교훈, 80~89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인간은 오직 이 방법으로 구속받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624.

첫째 날(일요일)

7월 13일

1. 동서양에서

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즉 그분의 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누가 그분을 찾았으며,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마 2:1, 2, 10, 11.

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무렵 누가 그분을 찾았으며, 그들은 누구를 상징했는가? 요 12: 20.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마 8: 11.

“박사들이 그분의 생애의 초기에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어떤 헬라인들]은 그분의 생애의 말기에 구주를 찾아 서방에서 왔다.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야심적인 계획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분의 강림을 알지 못하였다. 박사들은 구주를 경배하고자 선물을 가지고 이교의 땅으로부터 구유까지 왔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 그와 같이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내셨고 더욱이 그분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문을 퍼뜨렸다. 헬라인들은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하였다.” -시대의 소망, 621, 622.

2. 세상의 갈망

가. 헬라인들은 그들의 갈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요 12:21.

나.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알게 된 과정과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하라.
요 12:22, 23.

“세상의 갈한 외침의 메아리인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으며 그분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헬라인들의 요청 가운데서 그분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다.” -시대의 소망, 621.

“그 요청이 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성전 경내에 계셨지만 헬라인들이 있는 바깥 마당으로 나오셔서 그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나누셨다.” -시대의 소망, 622.

다. 그리스도께서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부드러운 관심은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가? 눅 14:23; 전 11:1, 2.

“우리는 기별을 듣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별을 귀담아 들을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대도시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위하여 관심을 가진 정직한 영혼들을 가지고 계신다. 기별을 반복해서 전하라, 기별을 반복해서 전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거듭 거듭 들려 왔다. 처음으로 기별이 전파된 곳과 한때 진리를 받아들인 적이 있는 교회들을 차례로 찾아가서 기별을 반복해서 전해야 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방법으로 기별을 증거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주라.” -복음전도, 394.

“우리는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분부를 받지 않았다. 진리는 대로와 소로에서 전파되어야 하고 이 사업은 실제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사업이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업에서 삼가신 것처럼 연극적인 요소나 비정상적인 활동 등을 멀리 피해야 한다. 감정은 신앙이 아니다.” -복음전도, 396.

3. 죽음으로 얻는 생명

가. 예수님은 밀알과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비교하셨는가? 요 12:24.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뿌려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대된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희생을 숙고하는 것이 그 희생의 열매로써 영생할 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께서는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께서는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께서는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시대의 소망, 623.

나. 예수님께서서는 씨앗의 비유를 어떻게 두 번째로 적용하셨는가? 요 12:25, 26.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의 필요라는 밭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사욕을 좇아 허비한 삶은 먹어 버린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요한복음 12:26 인용]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분의 떨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시대의 소망, 623, 624.

4.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심

가.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하시며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요 12:27, 28[상단].

“그 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그분께서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은 것으로 보일 때, 그리고 그분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가 생각할 그 때인 그 버림받음의 시간을 피하려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공적인 노출과 극악한 죄수 취급을 받는 일 그리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예감,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죄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로 인한 아버지의 분노로 의기 저상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인간은 오직 이 방법으로써만 구속받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고민에 나아가는 것을 동의하셨고,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 희생을 받아들였다.” -시대의 소망, 624.

나. 하늘에서 어떤 대답이 들렸는가? 요 12:28[하단]. 곁에 서 있던 군중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요 12:29.

“음성이 들렸을 때에 구름 속에서 빛이 반사되어 그리스도를 들렀는데 마치 무한한 능력의 팔이 불꽃의 장벽이 되어 그분의 주위를 두른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인 채 모든 사람은 눈길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서 있었다. 하늘 아버지께서 증언하실 때 구름은 피어올랐다가 흩어졌다. 그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가시적인 교제는 끝났다.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씀하였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의문을 품고 있던 헬라인들은 구름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으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난 바된 그리스도임을 분별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봉사의 시초인 예수님의 침례시에 들렸고 또다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던 때에 들렸다. 이제 그분의 봉사 사업이 거의 마쳐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 아래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시대의 소망, 625.

5. 유대인들의 불신

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하늘에서 다시 들려온 음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분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 12:37~41.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상태에 관한 가장 엄숙한 진리에 대해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호소를 하셨고 그들의 운명을 선고하셨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사명에 대하여 그분의 인을 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분을 인정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아버지께서 주신 징표였다.” -시대의 소망, 625.

“그들이 한 번은 구주께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요 6:30) 하고 물었다. 셀 수 없는 표적들이 주어진 바 되었으나 그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굳게하였다. 지금 그들이 더 이상 표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나 그래도 그들은 믿기를 거절하였다.” -시대의 소망, 626.

나. 그리스도의 사명이 참되다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치자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가? 요 12:42, 43.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였다. 그들은 질책과 수치를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어진 영생을 거절하였다. 그 때 이후로 모든 세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행하여 왔는가!” -시대의 소망, 62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2

1. 그리스도 탄생 당시 찾아온 자들과 지금 헬라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밀알의 비유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3.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로 여길 때, 나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4.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피해야 하는가?
5. 문헌 밀알의 두 가지 적용을 설명하라.

종들의 종이신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요 13:15).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642~651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무아(無我)의 봉사의 생애였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마 20:28) 것이 그분의 모든 행동의 교훈이었다.” -시대의 소망, 642.

첫째 날(일요일)

7월 20일

1. 이방인들의 개념

가. 루스벨로부터 시작된 어떤 파괴적인 사고방식이 유대교(그리스도의 제자들 포함)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눅 22:24, 25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다.” -시대의 소망, 435, 436.

“세상 나라에서 지위는 권력의 확대를 의미한다. 백성들은 지배 계급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마련이었다. 세력과 부와 교육은 지도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군중을 억압하는 많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상류 계급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향락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었으며 하류 계급은 복종하고 섬기게 되어 있었다.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종교도 권력에 좌우되었다. 백성은 저희 상전이 지도하는 대로 믿고 행하도록 기대되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권리는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550.

“영적 교만, 지시하고자 하는 욕망, 명예나 지위를 위한 야망적 갈망, 자체의 부족 등에 의하여, 정욕의 방종과 편견에 의하여, 불안정과 판단의 부족에 의하여 교회가 혼란해지고 평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교회증언 5권, 241.

2. 태도의 변화가 필요함

가. 더 높은 지위에 대한 야심 찬 갈망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원칙을 세우셨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가? 눅 22:26, 27; 요 13:13~16.

“그리스도께서는 이와는 다른 원칙하에 국가를 건설하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권력으로도 아닌 봉사로 부르셔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교육은 동료들에게 봉사할 큰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 소지자들에게 주 어졌다. ...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오만한 압제도, 행동의 강제도 없다. 하늘의 천사들은 지배하고 충성을 강요하려고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은혜의 사자로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들과 협력하려고 내려오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550, 551.

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설명하라. 즉, 우리 자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대체하려는 태도를 설명하라. 빌 2:3, 4.

“우리의 성품 속에 있는 자연스럽되 기쁜 것이 되지 못하는 특질 중 하나는 타인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 예민하게 깨닫고 끈질기게 기억하는 것이다.

B 형제는 그의 형제들과 연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자만심 때문에 연합해야 할 특별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는 저들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보다도 열등한 틀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의견과 조언을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커다란 수치로 여긴다. ... 그는 자기가 지극히 현명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수 불가결한 경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은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런 자신의 재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떤 위급함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증언 3권, 445.

“어떤 이들이 마치 구름처럼 들고 다니는 세속적인 이기심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마저 차갑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종종 오해를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한다.” -교회증언 3권, 528.

“만일, 형제들 중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생각과 소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할 것이다.” -복음전도, 447.

3. 끈기 있는 태도

가. 유월절 직전에도 사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는가? 마 20:20~24; 눅 22:24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 서로를 평가하였던 바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좌,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두 형제가 감히 가장 높은 지위를 요구한 것이 열 제자들을 격분시켜 서로를 멀리하게 하였다. 자신들은 잘못 판단을 받았고 그들의 충성과 재능은 옳게 평가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가장 가혹하였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치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 편으로 나아갔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시대의 소망, 643, 644.

나. 제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비유를 잊은 듯하여 그들 사이에 또 다른 불화의 원인이 되었는가? 마 18:1~4.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있었다. 잔치가 있을 때에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으며 이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곳에 있어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나 종이 그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 무감각하게 보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시대의 소망, 644.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 그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보자. 그들이 우리보다 마음과 목적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영문시조, 1885.2.19.

4. 실제적인 예

가. 제자들이 먼저 나서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신 후, 예수님은 마침내 무엇을 하셨는가? 요 13:3~5.

“[요한복음 13:5 인용]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께서는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본을 보여 주셨다.” -시대의 소망, 644, 645.

나.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 13:6~8[상단].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님께서 종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온 영혼이 이 굴욕에 대하여 분기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대의 소망, 645, 646.

다. 유다는 사단의 유혹에 얼마나 굴복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알고 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요 13:2, 10, 11.

“유월절 전에 유다는 다시 한 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순결한 것처럼 제자들과 섞여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흥미를 나타냈다.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 사랑의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리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645.

5. 세족 예식의 의미

가. 이 예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요 13:8[하단].

“우리 주님의 그 행동으로 이 겸손 예식은 성별된 예식이 되었다. 예수님의 겸손과 봉사
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이 예식을 지켜야만 하였다.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높
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겸손을 기념
하여 먼저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시대의 소망, 650.

나. 예수님께서 세족 예식 후에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예식을 지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요 13:12~17.

“우리는 잘못하기 쉬우며 여러 번 실수를 해 왔다. 회개와 자복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도
록 하자. 주님의 집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일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하자. 형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의 발을 씻겨주며 자문해 보라. ‘나
는 이 형제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무엇인가를 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가? 나는 우리를
이간시키는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한 일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충심으로 그대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것을 버리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면 마음은 마음과 결합하게 되고 하나님
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냄, 283.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7

1. 하늘의 태도와 땅의 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2. 내가 형제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나는 실제로 무엇을 거부하는 것인가?
3. 유다의 내적 경험이 나에게 경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설명하라.
5. 세족 예식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세계 대총회 교육부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교육은 성화와 마찬가지로 평생의 일이다. 어린 시절부터 영원까지 교육은 항상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이번 안식일을 통해 교회의 이 중요한 부분이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시대의 소망, 195.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고 죄와 죄인이 더 이상 없을 때에도 교육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는 인류의 모든 연령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육 기관은 기본 교육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것을 주입하는 센터로 전락했다. 학교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요청했다. 따라서 대총회 교육부는 바로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전체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다. 교육자들과 여러 부서들과 협력하여 이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용 가능한 금액보다 규모가 크다. 자료를 준비하고, 번역하고, 빈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기부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희는 최고 품질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그들은 현세에 있어서 유용한 인물과 영원한 하나님의 봉사사업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게 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95.

이 계획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수학부터 언어, 사회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제작하여 우리 중 가장 어린 아이들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미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재능 기부자와 기부자분들께 축복을 주시길 기도한다.

-세계 대총회 교육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8권, 265~269

“이 지구는 범죄로 인해 하늘 본토와 분리되었고 인류와 창조주 사이의 소통은 끊어졌었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오늘의 나의 생애, 260.

첫째 날(일요일)

7월 27일

1.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리심

가.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말씀으로 지상에서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리셨는가? 요 13:33. 그 분께서는 또 어떤 기별을 전하셨는가? 요 13:34, 35.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말씀이 있다. 과연 우리는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카롭고 비 그리스도인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거나 상심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화목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 불가결한 준비이다.” -실물교훈, 144.

나. 주님께서 떠나심에 관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요 13:36~38.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만하며 선언했던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저들의 자아 만족 때문에 저들은 쉽게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자들은 자신보다도 더 높은 힘을 의지하게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에는 사단은 우리들을 대적할 아무 힘이 없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쉽게 패배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07.

2. 위로의 기별

가. 예수님께서서는 다락방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셨으며,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요 14:1, 2.

“[요한복음 14:1~4 인용]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며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함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정반대였다. 이것은 최후의 이별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분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들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 시대의 소망, 663.

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기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포함시키셨는가? 요 14:3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하였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그분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같은 음성으로 그분은 그들을 하늘 왕국에 있는 그분께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 사도행적, 33.

다. 도마는 예수님께 길에 관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대답을 받았는가? 요 14:5, 6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셨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시다.” - 시대의 소망, 663.

3.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가.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셨으며, 이것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 14:7.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으로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사단이 신성의 보좌를 에워싸고자 노력해 온 짙은 검은 구름은 세상의 구속주에 의하여 제거되었고, 아버지는 생명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교회증언 5권, 738, 739.

나. 빌립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으며, 주님의 응답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요 14:8~11.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구하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신다. 그분의 품성의 고귀함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체현(體現),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 -교회증언 5권, 739.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외적인 형태로 볼 수 없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1권, 1141, 1142.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에라도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이 인류를 향하여 자신을 낮추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삼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

그들의 신앙은 아무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할 수도 없는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낮은 신앙 상태에서 당신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얻게 될 경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다.” -시대의 소망, 664.

4. 더 큰 일 = 더 큰 축복

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위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셨는가? 요 14:12.

“구주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는가에 관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심히 갈망하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인류를 향상시키시고자 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바 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사업이 그분이 하신 사업보다 더 고귀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이적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는 광경들이 모두 다 제자들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 거룩한 교사가 바로 자신이 그로라 하신 그분임을 알았다. 제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풀리고 부드럽게 되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믿었다.” -시대의 소망, 664~667.

나.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시대에 소망을 가져다주시기 위해 어떤 확신을 주셨는가? 요 14:13, 14.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財源)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요 16:24)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그분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 왔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님께서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667.

5. 특별한 시간

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실 때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했던 특별한 순간(요 14:8~10)과 우리 또한 하늘과 그러한 교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라. 아 2:3, 4.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한복음 14:8~10]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얼굴에 빛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열렬히 경청하며 신성한 경외심을 느꼈다. 그들은 마음이 더욱 그분께로 이끌리는 것을 느꼈고, 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이끌리면서 서로에게 이끌렸다. 그들은 하늘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느꼈고, 그들이 듣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별이라고 느꼈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5권, 1142.

“걱정하며 억압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바쁜 활동으로 너무도 팍 짜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조용히 휴식할 시간을 찾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마치 평안과 안정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초청하신다.

먼지나고 뜨거운 생애의 큰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늘에서 쉬도록 하자. 여기서 우리는 투쟁을 위한 힘을 얻는다. 여기서 우리는 수고와 걱정을 감소시키는 법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말하고 노래하는 법을 배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조용한 신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평화와 안식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야 한다.” -교회증언 7권, 69, 70.

“주님의 백성들이 온유와 친절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그분의 깃발이 사랑이며 그분의 열매는 그들 입에 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교회증언 7권, 131.

여섯째 날(금요일)

8월 1일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1

1. 베드로가 빠진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2.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처를 약속하신 것을 고려할 때, 지상에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3.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
4.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분께서 떠나실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셨는가?
5.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성령의 약속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행 5:32).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8권, 19~23; 사도행적, 47~56.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 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사도행적, 49.

첫째 날(일요일)

8월 3일

1. 순종 - 믿음의 열매

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무엇을 받게 되는가? 롬 5:1~5.

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는 이의 생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 14:15, 21; 요일 2:3.

“그분[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68.

2. 필수적인 필요

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요 14:16~18.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 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 때부터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에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669.

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거하실” 것인가? 요 14:19~23.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自主)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그분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서 지상의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의 장래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독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님께서서는 자기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고독한 섬에 추방당한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그분의 임재로써 그들을 위로하신다. 진리를 위하여 신자가 불의한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 그가 당하는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와 함께 거듭 거듭 정죄를 받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감금될 때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써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언제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시대의 소망, 669, 670.

3. 교사

가. 보혜사는 제자들의 기억과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 14:26

“그들[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분의 교훈의 대부분이 그들에게 거의 잃어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인정 깊게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 두셨다.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 주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670, 671.

나.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위해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요 16:12~14

“만약 그대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찬성할 수도 없는 어떤 진리의 요점이 발견된다면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이며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광산 깊숙히 들어가 진리를 채굴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의 견해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 놓아야 하며 그대들의 선입관념을 모두 버리고 하늘의 영께서 그대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13.

“우리는 말씀을 주신 그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 -교회증언 5권, 241.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 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사 59:19, 킹제임스)이다.

예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 두어야 위태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0.

4. 평화의 유산

가. 예수님께서서는 충실한 제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가? 역경의 시기에 매우 도움이 될 약속이었는가? 요 14:27~29.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슬픈 빛도 보이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분의 유산은 평화의 유산이었다.” -시대의 소망, 672.

“[요한복음 14:27 인용] 이 평화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는 평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악과 타협함으로 평화를 얻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평화는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것으로서, 투쟁과 논쟁의 자리에서 당신의 증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었다.” -사도행적, 84.

“진리의 역사는 항상 선악간의 투쟁의 기록이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반대와 위협과 손실과 고통을 받으면서 수행되어 왔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고 말씀하셨다.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서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그분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사도행적, 85.

나. 예수님께서서는 사명을 마치신 후 자신에 대해 무엇을 입증하실 수 있었는가? 요 14:30.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서 그가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어떤 점을 찾아낸다. 그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몇 가지 죄 된 욕망으로서 이것에 의해서 사단은 그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셨다. 유혹의 폭풍들이 그분께 몰아쳤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충성심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27.

5. 그리스도의 평화

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요 16:33; 엡 2:13, 14.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려 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말씀하신다.” -시대의 소망, 122, 123.

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시 119:165. 그러한 신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요일 3:22.

“주님께서서는 다른 어느 사람을 가르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에녹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와 교통하려고 가까이 오시는 때에 우리 마음은 우리 속에서 때때로 불타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그들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될 때에 바로 어떤 노선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순종과 봉사에 필요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바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6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34

1.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2.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보다 나에게 더 호소력이 있어야 하는가?
3.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가?
4. 하나님과 화평한 신자의 삶을 설명해 보라.
5. 성령의 사역을 요약해 보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하단]).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4권, 353~355; 교회증언 1권, 248, 249.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룬 연합은 지속적이다. 모든 다른 연합은 파멸되고야 말 것이다. 이 연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치르게 한다. 그것은 교만한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철저한 의존의 연합이다.” -교회증언 5권, 231.

첫째 날(일요일)

8월 10일

1. 연약하고 의존적인

가.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15:1[상단].

“우아한 종려나무나 높이 자란 백향목이나 강한 참나무를 선택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서는 덩굴손으로 매달리는 포도나무를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신다. 종려나무 백향목 참나무는 홀로 서 있다. 이 나무들은 아무런 지주(支柱)도 필요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시렁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와 같이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도는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셨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 5:30)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시대의 소망, 674, 675.

나. 예수님께서서는 포도나무를 통해 또 어떤 교훈을 설명하려고 하셨는가? 요 15:1~3.

“유대인들은 항상 포도나무를 가장 고상한 식물이며 힘있고 뛰어나고 열매 잘 맺는 모든 것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로 대표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희망을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결된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시대의 소망, 675.

2. 열매 맺는 조건

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요 15:4

“그분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은 너희가 나에게서 지지를 받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 접붙혀져 섬유질(纖維質)과 섬유질이, 엽맥(葉脈)과 엽맥이 연결되어 이것이 포도나무 줄기로 자란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된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이신 예수님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시대의 소망, 675.

나.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 15:6.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시대의 소망, 676.

다. 참된 제자의 신분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요 15:4; 8:31; 13:35.

“사람들이 폭력이나 사리(私利)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기워졌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신성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시대의 소망, 678.

3. 그리스도 안에 거함

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결될 때 어떤 확실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 요 15:5, 8.

“뿌리는 가지를 통하여 가장 먼 가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능력의 흐름을 전달하신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 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은 없다. ...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보일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676.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빛,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매 시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해가 만상을 비추고 세상을 빛으로 채우듯이, 의의 태양이 생각과 마음의 방들을 비추어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빛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아침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한 순간도 그분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원수는 우리가 주님 없이 행동하려고 할 때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악한 제안으로 채워 우리의 확고함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매 순간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신다.” -오늘의 나의 생애, 15.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진리와 그것이 생애에 미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늘의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실물교훈, 301.

나. 우리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요 15:9, 10; 요일 2:5.

“하나님께서서는 그대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의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시대의 소망, 677.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저희 품성을 계발시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그와 같이 저희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신다.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으나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실물교훈, 283.

4. 회복을 위한 깨움

가. 예수님은 자신과 믿는 자들을 연결하는 고리인 말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 15:3, 7; 6:63.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바 된 그와 같은 긴요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마 4:4) 살 것이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677.

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영적인 수술이 우리의 내적 동기와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하라. 히 4:12; 시 51:10.

“하나님의 종들은 육신적 마음을 끊어 버리고, 품성을 계발시켜 줄 분명한 증언을 해야 한다.” -교회증언 1권, 249.

“성경은 ... 매일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 성령의 일은 어두워진 이해력을 밝히고, 이기적이고 강박한 심령을 녹이며, 반역적인 죄인들을 굴복시키고, 그를 세상의 부패시키는 영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것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죄인의 마음을 파고들어 그것을 조각낸다.” -교회증언 4권, 441.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실물교훈, 96.

“[하나님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391.

5. 불태워야 하는가,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가?

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요 15:2[상단].

“접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죽은 가지에서 예증된 바와 같이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시대의 소망, 676.

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 안에 거하는 가지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요 15:2[하단].

“예수님께서서는 엄숙하고도 친절하게 농부의 의도를 설명하셨다. 가지를 치는 일은 고통을 유발할 것이지만 칼을 대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는 난폭한 손으로나 무관심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땅에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이것들은 줄기가 땅에 붙지 않도록 잘라 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하늘로 뻗어 나아가야 하며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과실에 전달해야 할 수액을 소모해 버리는 지나치게 무성한 잎들은 잘라 버려야 한다. 너무 자란 것들은 잘리움을 받아서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부는 과실이 더욱 알차고 더욱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해롭게 자라나는 곳을 잘라 버린다.” -시대의 소망, 677.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26

1.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2. 나는 어떻게 그분의 “전정 가위”의 유익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3. 이 “전정”은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4. 그리스도께서는 왜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 이러한 연관성을 설명하셨는가?
5.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형제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참조할 연구교재: 실물교훈, 376~389.

“그분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시대의 소망, 678.

첫째 날(일요일)

8월 17일

1. 새 계명

가. 위대한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타내셨으며, 그 사랑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 13:1[하단]; 15:13.

“이 사랑은 얼마나 넓고 충만한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했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곧 영광의 소망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제자들은 그 계명의 새로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자 그 사랑이 나타났다.” -영문시조, 1898.10.20.

나. 성령의 첫 열매는 무엇이며,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갈 5:22; 요일 4:11~13; 3:18.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사도행적, 551.

2. 새 계명 (계속)

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13:34.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이념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은혜의 온전한 사업은 사랑과 극기와 자기 희생의 노력의 계속적인 봉사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르신 때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분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시대의 소망, 677, 678.

나.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드러내는가? 롬 8:14; 요일 3:10.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에 두신다.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품성은 행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거나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자들이다.” -산상보훈, 149, 150.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성품과 성향은 그들의 주님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본받도록 주어진 거룩하고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을 진실되게 따르는 이들은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며, 그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끼쳐 주신 본대로 그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영혼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서 떠나 진리로 돌아서도록 설득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증언 3권, 58, 59.

3. 특별한 칭호

가. 예수님께서서는 충실한 제자들에게 어떤 칭호를 주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15:15, 14.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의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부과된 조건이다. 이것이 사람의 품성을 입증하는 시험이다.” -교회증언 4권, 188.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엄숙한 특권과 거룩한 신임의 때이다. 만일 이 신임이 충성스럽게 지켜진다면 주인께서 ‘네 하던 일을 셈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충성된 종의 상급은 클 것이다. 열렬한 수고, 이타적인 일, 인내하며 끈질기게 한 노력은 풍성히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손님이라 하리라. 주인의 인정은 성취된 일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며,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까닭이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큰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근본 동기인 것이다. 그분께서는 큰일을 성취한 것보다는 선함과 충성됨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교회증언 2권, 510, 511.

나. 예수님께서서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이 특권에 수반되는 책임은 무엇인가? 요 15:16, 17.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 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문제를 그분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본을 가르키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요 15:17),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말씀하셨다.” -실물교훈, 381, 382.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을 일상 생애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실물교훈, 383.

4. 세상의 박해

가. 세상은 그리스도의 친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15:18, 19.

“사람들이 폭력이나 사리(私利)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기워졌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신성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이야말로 사단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쉬운 길을 설계하지 않으셨다.” -시대의 소망, 678.

나. 세상은 왜 그리스도를 박해했으며, 그분의 추종자들 또한 왜 박해를 받는가? 요 3:19, 20; 15:20, 21.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악의 왕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박해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그 원칙 곧 그 아래 깔려 있는 정신은 아벨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의 택한 자들을 살해해 온 바로 그것이다.” -산상보훈, 29.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서 인기를 끌어본 적이 없다. 자연적인 본성은 진리를 거스른다. 우리가 갈바리의 사람을 따르기 위하여 세상의 애착과 교만한 마음과 우상숭배로 기우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 사랑과 존경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 사이에서 겸손하게 행하셨던 거룩한 교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그렇다. 우리의 모본을 따르자. 그분이 인간의 칭찬과 명예를 얻으려 하였던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교훈을 들어보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교회증언 2권, 491.

5. 믿는 자들의 삶 속의 신성한 사랑

가. 사도 바울은 거짓된 사랑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고전 13:1~8.

“그의 공언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가치할 것이다. 그가 크게 관대함을 나타낼지라도, 진정한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동기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면 그 행위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열심으로 그가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혹을 당한 광신자나 야심만만한 위선자로 여기실 것이다.”
-사도행적, 318, 319.

나. 요한계시록 3장 10~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특성들과 그 특성들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순결하고 거룩한 의복은 사람이 도성 문 안에 들어간 후에 입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일 것이다. 이 이름은 사도가 계시에서 본 상징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지적이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품성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죄와 허물을 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어떤 옷도 반쯤 빠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순수하고 흠이 없을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86.8.1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17

1.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어떤 신성한 사랑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시는가?
2.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3. 그리스도의 계명은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것인가?
4. 박해를 받아도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빌라델비아 시대에 신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설명하라.

성령의 사명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8권, 14~23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671.

첫째 날(일요일)

8월 24일

1.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는가? 요 16:1~3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고독한 섬에 추방당한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그분의 임재로써 그들을 위로 하신다. 진리를 위하여 신자가 불의한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 그가 당하는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와 함께 거둡거둡 정죄를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감금될 때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 -시대의 소망, 669.

나.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가? 요 14:18; 15:26.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대리자, 곧 신성의 삼위 되신 분을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이 은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은사를 하나로 주시려고 하였고, 따라서 거룩한 영을 주시어 회심시키고, 깨우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셨다.” -오늘의 나의 생애, 36.

2. 보혜사의 사역

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그분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 16:7.

“그 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그분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기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권능이 저들을 통하여 비치었다.” -정로의 계단, 75.

나.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어떤 광범위한 사역을 행하실 것인가? 요 16:8~11.

“성령께서는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셨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러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 주신다.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요 16:13)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풀지움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 방법이 지극히 명료하게 되어 아무도 과오를 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사도행적, 52, 53.

다. 성령께서 세상 앞에서 이루실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요 15:26.

“세상을 경고하는 것은 성령의 연합과 살아 계신 증인의 증거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늘의 교통신을 전달하는 대리자이며,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신성한 권위를 주신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6권, 1053.

3. 그리스도를 증거함

가. 성령 외에 누가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요 15:27; 요일 1:1~3.

“장사꾼도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기의 구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 같으면 그는 자기의 신앙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직공들도 갈릴리의 산간에서 비천한 생업으로 수고하신 분의 근실하고 충성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선행을 보고 저희의 조물주와 구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행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아무리 비천한 임무라도 사랑의 정신으로 ‘주께 하듯’(골 3:23) 이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생애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우리의 주위를 에워싸게 되고 우리의 감화는 다른 사람을 고상하게 하며 복되게 할 것이다.” -정로의 계단, 82, 83.

나. 구약 시대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는가? 올 2:28, 29.

다. 이 약속은 언제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는가? 행 2:1~7, 16~18.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기름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사도행적, 38, 39.

4. 우리 시대에

가. 요엘 2:28~32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행 3:19

“이 약속은 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 앞에 제시되는 일은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르며,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극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 침묵한 결과로 모든 영적 수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 풍부한 약속만큼 실현되지 않은 약속도 드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성령의 약속은 이따금 우리의 설교 속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우연히 지나쳐 갈 뿐이고, 그것으로 그만이다. 예언들을 연구하고 교리들을 설명해 왔지만, 영적 능력과 능률에 있어서 성장하고, 확신을 끼치는 설교를 하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목회적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174.

“만일 교회의 평신도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 그들 자신의 비용으로 싸움을 계속 할 것 같으면, 각 사람은 그가 예수님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대열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의 백성들이 이 몇 마디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볼 것이다. 놀라운 부흥이 따를 것이다. 죄인들은 회개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사업과 조화를 이룰 때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 위에 내렸던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리실 것이다.” -교회 증언 8권, 246.

나.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요 16:12~14; 속 10:1.

“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게 되며, 친절과 긍휼과 동정을 가지고 죄인을 위한 사랑을 나타내는 반면에 죄는 온전히 미워하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369.

“하나님의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대열에 세상을 경고하는데 저희 몫을 감당할 사람들, 곧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더해 주실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복음전도, 558, 559.

5. 준비

가. 늦은 비의 능력으로 성령이 부어지실 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호 6:1~3.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 줄 ‘늦은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 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초기문집, 7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07

1.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2.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3.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돕는 데 있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4. 지상에서 성령의 기능을 설명하라.
5. 요엘 2장 28~32절의 예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라.

르완다 마호코의 한 학교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르완다 공화국은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부룬디와 국경을 접한 동아프리카 국가이다. 2000년대 초부터 커피와 차 수출, 농산물 생산, 비누, 에너지, 생수 등을 통해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천 개의 언덕의 땅”으로 널리 알려진 르완다는 최근 몇 년 동안 아름다운 강과 호수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특히 마호코 시 인근은 학교 계획이 진행 중인 곳이다.

1,3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르완다의 공용어는 키냐르완다어, 프랑스어, 영어(20%가 공용어), 그리고 스와힐리어이다. 인구 중 43.7%가 가톨릭, 37.7%가 주류 개신교, 11.8%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다른 개신교와 구별되는 범주로 언급됨), 2.0%가 무슬림이며, 그 뒤를 이어 기타가 있다. 여기에는 모든 종교가 있지만, 점점 타락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녀의 철저한 교육에 투자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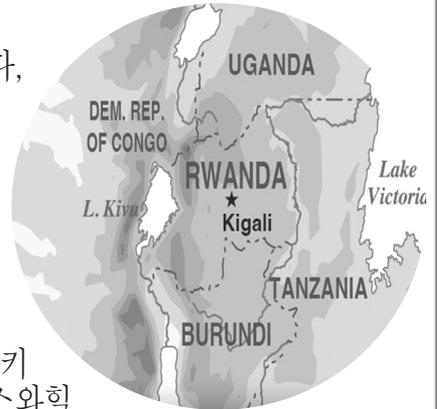
“참 교육은 선교 사업을 위한 훈련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에게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봉사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다.” -치료봉사, 395.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잠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의 간계로부터 보호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때 접근이 제한되었던 것이 이제는 “스마트” 폰과 다른 기기를 통해 문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따라 다니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 전파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에 적합하게 될 수 있겠는가? 정부 소유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안식일에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큰 걱정이다. 따라서 지원이 절실하다.

재정이 부족하여 전 세계 형제자매들께 이 학교 건물 건축을 위한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안식일 연금을 모을 때, 이 천 개의 언덕의 땅에 있는 이 학교 건물의 건축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아낌없이 기부해 주시기 바란다. 주님께서 예물들과 드리는 분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

-르완다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요 17:9, 10).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737~746.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구주께서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희생, 곧 자신을 바치셔야 할 때 회장 안에서 행하실 중보에 대한 교훈이다.” -성경주석[화잇주석] 5권, 1145.

첫째 날(일요일)

8월 31일

1. 제자들과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요 17:1, 9.

“[요 17:1~6 인용]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마지막 기도였다. 이 기도는 그분이 배반당하고 잡혀가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드리셨다.” -성경주석[화잇주석] 5권, 1145.

나. 이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요 17:1, 2.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들이 서로 맺는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성경주석[화잇주석] 5권, 1145.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장(章)은 되풀이해서 읽혀져야 할뿐만 아니라, 그 진리들은 먹어서 흡수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8권, 80.

2.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결과

가.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의 기초로 어떤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셨는가? 요 17:3.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지식이며 이것 외에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사도행적, 475.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요 16:27)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정된다면, 그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서 ... 들어 가셨’(히 6:19, 20)음을 입증할 것이다. 실망이 다가올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환난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갖가지 불만의 요인 때문에 난처해 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보호는 각 가정에 미치고 각개인을 둘러싼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신다. 지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목적을 성취시켜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히 12:10)하시고 그분의 임재에서 발견되는 완전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허락된다.” -교회증언 5권, 742.

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러한 지식의 결과는 무엇인가? 호 6:3을 요 17:3과 비교해 보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적인 지식으로 활력을 얻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얼마나 인내심이 많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신성한 연민이 많으시고, 얼마나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분께서는 결코 낙담하시거나 좌절하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순수함의 화신이셨고, 그분의 사랑은 비할 데가 없었다. 매 걸음마다 그분께서는 자기 부정과 자기희생을 실천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보여 주셨다.” -영문시조, 1898.1.27.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22.

3.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으심

가. 그리스도의 봉사 기간 동안 지상에서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요 17:4.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로운 행위들을 통해,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각인시키시고자 하셨다. 그분의 모든 교훈 속에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놀라운 진리를 인간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애쓰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바라시며,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려고 애쓰신다. …

예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으며 사단이 만들어 낸 오해들을 일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분께서 친히 사람들 가운데 생애하심으로써만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었는데 이는 자비로운 행동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39.

나. 예수님께서서는 지상 사명을 마치신 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셨는가? 요 17:5.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본성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 본성은 그분의 전 존재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됨을 통해 소유하신 영광에 관해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의 기도는 중보자의 기도이다. 그분이 간구하시는 은혜는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였을 때 소유하셨던 신성한 영광의 나타남이다. ‘휘장을 걷어내고 내 영광을 비추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비추소서.’” -영문시조, 1899.5.10.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 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原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써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아흔 아홉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하늘 조령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그분을 사랑하는 아흔아홉을 뒤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사 53:5)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 -실물교훈, 190, 191.

4. 후계자 준비

가.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요 7:17; 17:7. 오늘날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 빛에 충실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열성인 이들은 교리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또한 진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갈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배적인 섭리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분의 진리를 아는 일 쪽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려 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할 힘이 있다. 선택력은 그들에게 놓여져 있다. 그들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 구속주의 이름과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든지, 혹은 불순종하든지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신성하고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깨닫도록 하시며, 영혼들은 진리를 받아들일지 거절하든지 결정한다.” -교회증언 3권, 427, 428.

나.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의 믿음에 관하여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17:8.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요 17:3, 8 인용]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서 아버지의 대표자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주어진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 우리는 대속죄일의 원형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육적 재능을 사용하여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과 모범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교육, 157.

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가? 요 17:9, 20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 가장 시련을 받고 유혹받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49.

5.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심

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요 17:10, 11.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질서, 하늘 정부의 계획, 하늘의 거룩한 조화가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계획하신다. 이렇게 하여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들을 통하여 의의 태양은 광명한 광채를 세상에 비칠 것이다. …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교회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보화가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될 그분의 보고(寶庫)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굴욕의 보상으로 또 그분의 영광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분의 백성의 순결함과 완전함을 바라보신다.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모든 영광을 발산하시는 대중심이시다.” - 시대의 소망, 680.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제자들은 그에 수반되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바랄 수 있었다. 이러한 거룩한 대리자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세상 앞에 연합 전선을 펴서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들과 싸워야 할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연합된 수고를 계속할 때에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 앞서 길을 열 것이며 마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이었다. 그들이 연합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아 6:10) 있게 나아갈 것이었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다. 교회는 승리에 승리를 더하며 전진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할 것이었다.” - 사도행적, 90, 9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56

1.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나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2. 나의 그리스도인 경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교육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
3. 그리스도께 더욱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는가?
5.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유를 설명하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Ⅲ)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6).

참조할 연구교재: 성화된 생애, 61~69.

“성별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충실한 목자로서 그분께서는 강하고도 확실한 피난처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그분의 양 무리를 모으신다. 그분에게는 사단과의 마지막 투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이 투쟁을 맞으려고 나아가신다.” -시대의 소망, 680.

첫째 날(일요일)

9월 7일

1.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

가. 예수님께서서는 중보 기도에서 교회의 성공에 필수적인 어떤 점을 반복해서 언급하셨는가? 요 17:11[하단], 21~23.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다. 그리고 신자들의 이러한 연합은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증거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의 나의 생애, 252.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 될는지 그대가 알 수 있겠는가? 그때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것을 알 수 없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완전한 연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십자가에도 갈 수 없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96.

나. 교회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고 유지할 수 있는가? 요일 1:7.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연합은, 피차간의 연합을 하나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 줄 것이며, 그 연합의 유대는 지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들인데, 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유일의 가지들이다.” -교회증언 5권, 47.

2.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세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 17:13, 14. 세상은 왜 그들을 박해하는가?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특별한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흠 없는 행실과 견고한 믿음은 언제나 죄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는 견책이 되었다. 그들은 수효도 적고, 재산과 지위와 명예로운 칭호도 없었지만 그들의 품성과 교훈은 어디서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마치 아벨이 경건치 못한 가인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성령의 지배를 거스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곧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거룩함이 그들의 이기심과 타락에 대한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시던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충성된 제자들은 죄를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미움과 반대를 받아왔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6.

나. 세상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요 17:15, 16.

“구주께서는 자신의 모본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만적 향락에 동참하고 그 풍속에 죄우되고 그 행습들을 따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설 수 있다. 그의 지위나 환경이 어떠한지 그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참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 사도행적, 467.

“세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않다. 교회는 그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유혹에 노출된 채 세상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타락시키는 세상의 영향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완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 결함을 야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품성을 완전케 하시기를 바라신다.” - 교회증언 5권, 334.

3. 진리 안에 있는 능력

가. 진리는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 8:32; 17:17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는 인간 가족들과의 모든 교제에 거룩한 감화를 끼쳐야 한다. 진리의 누룩은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온 참된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변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거나 자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오전(吳傳)된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따라간다. 그는 친절하고 사려 깊고 자신에 대해 겸손해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다.” -실물교훈, 101, 102.

나. 진리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시 119:142.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여호와와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행위인 것이다. 성경상 성화는 성경을 탐구하지 않고 감추인 보물을 찾듯 진리를 찾는 것보다 선한 감정과 충동에 의지하는 거짓된 성화가 아니다. 성경상 성화는 그것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알고 순종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높이라. 152.

다. 우리는 어떻게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요 17:19; 16:13[상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거룩함을 얻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들에게 흠 없는 본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 이기는 자로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수 없이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제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오늘의 나의 생애, 252.

4. 광범위한 관심사

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 17:20.

“그리스도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구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날의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정로의 계단, 75.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들은 그분의 보석, 특별히 귀한 보물이다.” -교회증언 6권, 309)

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날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요 14:16.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증오를 받으며 그 자신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임으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 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사도행적, 51.

“가장 긴박한 사태의 시간, 낙담이 심령을 압도하고자 하는 때, 그 때가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는 때이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실패될 그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그리하여 그분의 임재가 어둠을 흩어버리고 음침한 구름을 거두어 버린다.” -교회증언 4권, 530.

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를 마치시며 그분의 백성을 위해 어떤 소망을 나타내셨는가? 요 17:24.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시대의 소망, 834.

5.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도록

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아버지를 반영해야 하는가? 요 17:25, 26.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신다. 그분의 품성의 고귀함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체현(體現),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 -교회증언 5권, 739.

나. 우리는 삶에서 항상 어떤 초점을 유지해야 하는가? 렘 9:23, 24.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보다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명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자리가 없다. 그들이 즐기는 모든 축복들, 그들이 소유하는 모든 선한 자질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지혜나 의를 소유함으로 그들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

하나님의 일에 가장 깊은 경험을 가진 자들은 교만이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에 대하여는 가장 비천한 자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성에 대한 가장 뛰어난 개념을 가지고 있다. ...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그리스도의 품성의 분명한 사상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주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자기 속에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생애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크신 모본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35.

여섯째 날(금요일)

9월 12일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46

1. 형제들 사이의 연합을 증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로부터 나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3.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4.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라.
5. “진리”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요약하라.

그리스도의 체포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겐을 집에 쫓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 18:11).

참조할 연구교재: 초기문집, 165~168.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시대의 소망, 690.

첫째 날(일요일)

9월 14일

1. 엄숙한 순간

가.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가? 요 18:1; 마 26:36

나. 세 명의 제자에게 함께 가자고 권하시면서 주님은 어떤 요청을 하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막 14:33, 34

“속죄가 불가능하게 보일만큼 죄를 사악하게 보이게 하고 따라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저주 아래서 압착, 분쇄되어 버릴만큼 죄를 크게 부풀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졸지 않고 깨어서 크고 광범한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 제시하는 마귀의 일은, 그분께서는 쓰라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어떤 인간도 직접 대면하고 있을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닥칠 재난을 생각하실 때 느끼시는 그분의 고뇌를 제자들이 목도하는 것까지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함께 있지 말아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칼을 뽑으사 죄악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인간의 대리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5권, 1102, 1103.

2. 깊은 고뇌

가.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막 14:35, 36.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전에 항상 서시던 바와는 다른 태도로 서셨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슥 13:7).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증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한 증보자를 가지고자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에 그분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삼년 동안을 준비해 왔었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분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시대의 소망, 686, 687.

나. 고뇌에 찬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보셨는가?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셨는가? 막 14:37, 38.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들을 두고 오신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자는 것을 보’셨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다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깨끗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처음에 제자들은 항상 매우 평온하고 위엄이 있으신 저희 주님께서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투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했었다. 고통하는 분의 힘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기도했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 하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대의 소망, 688.

3. 깊은 고뇌 (계속)

가. 그리스도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으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마 26:42, 43. 그때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사 52:14.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서는 굳센 백향목처럼 서서 그에게 분노를 퍼붓던 반대의 폭풍우를 물리치셨다. 악한 의도와 적의와 교활한 마음으로 가득찬 자들이 예수님을 어지럽히고 넘어뜨리려고 헛되이 노력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거룩한 위엄 가운데 계셨다. 이제 그분께서는 화난 폭풍에 꺾이고 휘어진 갈대와 같았다. 그분께서는 모든 국면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얻은 정복자로서 그분의 사업의 완성을 향하여 가까이 이르고 계셨다. 영화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주장하셨다. 분명한 어조로 그분께서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셨다. 그분은 용기와 친절의 말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어두움의 권세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그분의 음성은 승리의 음조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으로 가득 찬 음조로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렸다.” -시대의 소망, 689, 690.

나. 그 중대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으셨는가? 눅 22:43.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고뇌와 위로에 대해 어떤 말로 예언했는가? 사 53:11.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기에 처하였으며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분의 손에서 떨어졌던 그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위급한 시간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었는데, 사단이 떨어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그리스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 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였다. 인류 가운데서 큰 무리가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은 영혼의 수고에 만족하실 것이라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시대의 소망, 693, 694.

4.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심

가.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를 이끈 사람은 누구였는가? 요 18:2~5.

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폭도들에게 밝히셨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 18:6.

“예수님께서 배반자를 만나시기 위하여 걸어가실 때에 조금 전까지 고민하시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분의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내로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 수종들던 천사가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로 나섰다. 거룩한 빛이 구주의 얼굴을 비추고, 비둘기 같은 모양이 그분을 가리웠다.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에 살기등등한 군중들은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제사장들, 장로들, 군사들, 그리고 유다까지도 죽은 사람들처럼 땅에 엎드러졌다.

천사는 물러가고 빛은 사라졌다. 예수님께서서는 도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지만 조용하고 침착하게 남아 계셨다. 영광을 받으신 그분은 지금 그분 발 앞에 무기력하게 엎드러진 그 완고한 무리들 가운데 서 계셨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694.

다. 유다의 배신은 폭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베드로에 의해 어떻게 오해받았는가? 요 18:7~10; 눅 22:47~50.

“폭도들은 조금 전에 저희 눈앞에서 영화롭게 되셨던 그분의 몸에 유다가 접촉하는 것을 볼 때에 대담해졌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선한 일에만 쓰시던 그 귀하신 손을 묶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은 저희 주님께서 자신을 잡히도록 내어 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었다. 왜냐하면 폭도들을 죽은 사람처럼 넘어지게 한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과 그분의 동료들이 도망할때까지 폭도들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저희가 사랑한 그분의 손을 묶으려고 포승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분개하였다. 베드로는 분개하여 성급히 칼을 뽑아 주님을 방어하려고 하였으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뿐이었다.” -시대의 소망, 696.

5.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심

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나타내신 인내심 있는 사랑을 묘사하라. 마 26:51~53; 눅 22:50, 51. 하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가?

“제자들은 그 때 무장한 무리들이 빨리 물러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을 둘러싸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 잘라 버렸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칼을 집에 꽂으라고 명하신 후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천사들의 얼굴에 회심의 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들은 내려가 저들의 사령관을 둘러싼 다음 성난 폭도들을 쫓아 버리고자 했다. ...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시고 말 없이 그들에게 끌려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실망과 낙담으로 어두워졌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모두 그분을 버리고 흩어졌다. 예수님께서 잔인한 폭도들의 손에 홀로 남게 되었다. 오, 그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슬픔은 오죽했겠는가! 선두에 지휘하는 천사가 서 있었다. 많은 거룩한 천사의 무리가 그 광경을 지켜보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온갖 모욕과 잔혹함을 기록하였으며 예수님을 때리고 고통을 준 사실을 날날이 새겨 두었다. 이는 그 두려운 일에 가담했던 자들이 이 후에 부활하여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광경을 다시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초기문집, 168.

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훈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요 18:11; 요일 3:15.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35

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호소 중 어떤 것이 나에게 특별히 유효한가?
2. 주님께서 겐세마네에서 하신 경험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3.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것과 같은 반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4.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뇌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5. 군중은 천사의 영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시몬 베드로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청구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 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 32).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331~336.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그의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실물교훈, 155.

첫째 날(일요일)

9월 21일

1. 베드로의 품성

가. 시몬이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1:42.
회심하기 전 베드로의 성품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베드로]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 야심과 자만,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죽음의 역사 등 이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읽으셨다.” -시대의 소망, 139.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였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시대의 소망, 382.

나.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초대를 하셨는가? 마 4:18, 19.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는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는 일이었다.” -시대의 소망, 246.

2. 베드로의 실수

가. 오순절 성령 침례 이후에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사실이 보여주는가? 갈 2:11~14.

“그[베드로]는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그의 신중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신임을 얻었다. 한동안 그는 하늘에서 받은 빛에 따라 행하였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 개종자들과 식탁에 앉는데 대하여 가졌던 그의 타고난 편견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이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 교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지각없이 변경시켰다. 많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지도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 편에서 이와 같이 약점을 드러낸 것은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인상을 남겼다. 교회는 분열될 위험에 직면했다.” -사도행적, 197, 198.

나. 베드로의 실수와 회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시 145:14.

“베드로는 그가 범한 과오를 알고서 그의 힘에 미치는 한 신속히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였다. 종말을 시초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 받은 사도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내버려두면 판단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최고의 대권이 베드로와 자칭 그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만을 당할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 사도의 약점에 대한 이 기록은 그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사도들의 수준 이상으로 높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거로서 보존되어야 하였다.

올바른 원칙에서 떠난 이러한 역사 기록은 하나님의 사업에 중임을 맡은 사람들로 성실성에 실패함 없이 원칙을 굳게 고수하라는 엄숙한 경고가 된다. 인간 대리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클수록, 그리고 그가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그가 주님의 길을 신중히 따르지 않고 연합 회의에서 전체 신자들이 내린 결정과 조화를 이루어 일하지 않는다면, 그가 끼치게 될 해악은 더욱 클 것이다” -사도행적, 198, 199.

3.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아님

가.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 16:16~19.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선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바 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신성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 시대의 소망, 412, 413.

나. 베드로처럼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교회의 참된 기초에 대해 무엇을 선포했는가? 사 28:16; 고전 3:11; 뱀전 2:3~6.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분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

육천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육천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러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전체 신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국 열쇠’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시대의 소망, 413.

4. 베드로의 타락과 회복

가. 베드로의 가장 큰 성격적 결함을 설명하라. 막 14:27~29.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된 두 계층에 대한 교훈은 사도 베드로의 생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 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막 14:27) 고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다 버 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막 14:29)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부심(自負心)이 그의 판단을 흐렸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 와 맹세로써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실물교훈, 152.

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주제넘은 제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눅 22:31, 32

“답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 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 라보셨다. 베드로는 그분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그윽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 하였다.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 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셨다. 이제 그의 자부심은 사라졌 고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실물교훈, 152~154.

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요 21:15~17. 예수님께서서 는 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으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눅 22:31, 32.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 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 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 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서의 감화를 소멸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 -시대의 소망, 811.

5. 사역의 확증

가. 제자도의 주요 특징 몇 가지를 쓰라. 골 1:10, 11; 3:12~14.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대하신 방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 그 제자의 죄에 대한 질책은 그리스도께 던져진다. 그것은 사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며 흔들리는 영혼들을 넘어지게 한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냄으로 제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 치욕을 제거해야 하였다.” -시대의 소망, 811.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께서는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이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마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시대의 소망, 815.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24

1. 베드로처럼 나도 어떻게 내 자신의 성품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2. 베드로가 드러낸 성품의 결함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3. 베드로의 타락과 회복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4.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왜 형제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야 했으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5.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기초를 설명하고, 천국의 열쇠를 찾으라.

첫째 안식일 연금



7월 5일 안식일

타히티 아루에 교회

태평양의 이 외딴 섬에 하나님의 등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4페이지 참조)



8월 2일 안식일

대총회 교육부

유능한 젊은 선교사들은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그들의 교육 과정을 계속 준비한다. (25페이지 참조)



9월 6일 안식일

르완다 마호코에 있는 학교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님을 위한 충실한 선교사가 되도록 한다. (51페이지 참조)